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부장—강철주
 기자—정혜옥 이상수
 김중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최병천
 김윤희 김용일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권영빈	김장태	김광수	김문환	김석만
김성곤	김인중	김영환	김인회	김종원
김치수	김태준	김태현	김태형	박명순
박성래	박세희	반성완	변형운	서연호
송상용	신복룡	신용하	안병영	안희준
양문길	오광수	유일상	윤지관	이강숙
이경훈	이광주	이기상	이두영	이만열
이병훈	이상일	이승우	이원복	이중환
이희재	임희섭	장필화	장희익	정병규
정석중	정운영	정진석	정진홍	조남현
홍대현	최종고	한상진	한승현	허석열
조정선	황현산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재미있는 책이야기

살아있는 책

筆寫本이나 책의 유통이 제법 활발하던 로마시대에 이테리우스라는 부호가 있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는 책을 읽기에는 지나치게 게으르면서도 지적 허영심만은 대단해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노예들 가운데 2백명을 뽑아 각자 한권씩의 책을 암기하도록 명령한다. 이를테면 어떤 노예에게는 「일리아드」를 암기하도록 하고 다른 노예에게는 「오디세이」를 외우도록 해 필요할 때마다 책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현하도록 했던 것이다. 일종의 暗誦奴隸團으로서 ‘살아있는 책’들의 움직이는 도서관인 셈이다.

그러나 이 움직이는 도서관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많은 손님들을 초청한 한 연회에서 이테리우스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술잔치를 벌였는가를 아는 체하려고 “거기에 관해서는 일리아드에 유명한 문구가 있다”며 하인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러자 한참을 우물쭈물하던 하인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한다. “주인님, 일리아드는 오늘 배가 아파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불타버린 도서관들

16세기 중엽에 프란시스코회의 한 열성적인 수도승이 스페인 정복지였던 멕시코의 마니에서 마야의 학자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도서관을 발견했다. 상형문자가 그려진 평평하게 만든 식물의 섬유질로 된 두루마리 사본들로 가득찬 그 도서관은, 그러나 발견 즉시 없어져 버리고 만다. 신심 깊은 그 수도승은 “악마의 거짓말 이외에는 아무 것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두 태웠다”는 기록만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고대문명의 가장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비슷한 운명을 맞는다. ‘피나크스’라고 불리는 장서목록만도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1백20권에 이를 만큼 큰 규모를 자랑했던 이 도서관은 기원전 47년 시저의 알렉산드리아침공 당시 그 대부분이 파괴된데 이어 다시 391년에 기독교도들에 의해 나머지가 불타 없어진다.

전쟁과 종교적 편견에 의한 책과 도서관의 수난은 물론 이뿐만이 아니다. 5세기경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이탈리아 반도가 유린되면서 결정적으로 파괴된 로마의 도서관들이 그렇고, 11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이베리아 반도와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 등지에서 광신적인 십자군 원정대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슬람 도서관들의 대대적인 파괴가 또한 그렇다.

좁쌀책

사람의 육안으로 문자를 판독할 수 없을 정도의 超小型 책자를 흔히 부르는 말로 ‘좁쌀책’이라고 한다. 서양에서는 ‘미니어처’ 일본에서는 ‘마메혼(콩책 : 豆本)’이라고도 하는 좁쌀책은 실용성보다는 한 나라의 인쇄 및 출판수준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장서가들의 수집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 나온 좁쌀책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은 「올드 킹콜」이라는 책이다.

가로 세로 1mm씩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꼽히는 이 책은 1985년 영국의 한 출판사가 펴낸 동화책으로 모두 22면에 바늘끝으로만 책장을 넘길 수 있다고 하는데, 제작 당시의 권당 가격은 85달러였다. 소매 속에 넣어두고 보는 진귀한 책이라는 뜻을 지닌 袖珍本의 전통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1년 박암종씨가 만들어낸 「금세기의 위대한 30인의 디자이너」가 가장 작은 책으로 가로 세로 2.5cm 72면에 인물사진과 색채인

쇄까지 들어있어 흥미를 끈다.

세계 최장기간 편찬사전

동화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독일의 야곱과 빌헬름 그림 형제가 만든 「독일어사전」, 속칭 「그림사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편찬된 사전으로 꼽힌다. 「그림사전」의 완간에 소요된 시간은 무려 2세기에 걸쳐 있다.

우선, 그림 형제가 사전편찬을 본격적으로 ‘계획’한 것이 1838년이다. 바로 전해에 그림 형제는 하노버 王政의 정치적 박해로 괴팅겐 대학 교수직에서 추방되어 카셀이란 곳에 은거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림 형제와 라이프찌히의 바이트만 출판사 대표 히르첼 사이에 사전 편찬의 가계약이 맺어지게 된다. 그러나 막상 정식계약이 체결된 것은 10년의 세월이 흐른 1847년이며, 본격적으로 사전편찬을 시작한 것은 그 2년 후인 1849년부터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전 편찬작업은 1852년에 그 첫번째 分冊을 내게 되는데, 빌헬름에 이어 야콥이 사망한 1863년까지 이들 형제는 나중에 실제로 간행된 「그림사전」의 약 9%에 달하는 분량의 작업을 진행시켰다. 그림 형제 사후 사전편찬 작업은 힐데브란트 등 출판사측이 위촉한 학자들, 베를린의 프러시아 학술원 등에 의해 차례로 계승되다가 1960년 동서독의 공동작업으로 제32권째를 넘어서서 일단 완간을 보게 되었다. 첫째권 발행 이후 108년만의 일로, 총면수 3만3천872면에, 그동안 분책으로 배본된 것만도 모두 380여종이었다.

그러나 「그림사전」이 말그대로 완간된 것은 다시 11년이 흐른 다음이었다. 각종 용례들의 출처를 밝힌 2만5천여권의 原典 일람과, 배본판들의 연대기, 편찬자 명부 등을 모은 색인집으로 1971년 제33권째가 출간됨으로써 마침내 「그림사전」은 완간되었다.

“나는 정신세계사의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정신세계사의 돋보이는 책들

성자가 된 청소부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주는 감동적 영적 소설/바바 하리 다스 지음/류시화 옮김/4,000원

빠빠라기

처음으로 문명을 본 남양의 추장 투이아비가 들려주는 문명의 우수광스러운 본질/최시림 옮김/3,500원

털없는 원숭이

인간적 행위의 동물적 의미를 들추는 냉철한 인간 성찰/테스먼드 모리스 지음/김석희 옮김/4,000원

파라독스 이슬 우화

인간과 삶에 대한 신선한 역설이 담긴 ‘전혀 다른’ 이슬 우화/로버트 질러 지음/김정우 옮김/3,200원

파라독스 중국 우화

루쉰, 귀모뤄 등 중국 현대 작가 22인의 우화 선집/루쉰의 지음/이효령 역고 옮김/3,500원

자유를 위한 변명

구도의 출근-홍신자의 자유롭고 파격적인 삶의 이야기/홍신자 지음/5,000원

신의 들에서 놀며(상·하)

대자연과 인간의 존엄을 그린 미국 문단 거장의 장편소설/피터 매티센/김석희 옮김/각권 4,500원

세계의 공동체마을들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16개국 공동체마을의 이념과 생활상/율리버 포피노 외/이천우 옮김/6,000원

식물의 정신세계

꽃에게 영혼이 있다는 시인들의 직관을 과학으로 증명 한 책/피터 톰킨스 외/황정민 옮김/7,500원

초인생활

히말라야 초인들의 초자연적 세계를 목격한 한 미국인의 기록/버터드 T. 스펠딩/정창영 옮김/7,000원

달마

라즈니쉬가 특유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강의, 해설한 달마어록/오소 라즈니쉬/이연화 옮김/7,500원

건강도인술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켜 주는 중국 3천 년의 건강 비법/하야시마 마사오/김종오 옮김/5,500원

건강기공

동양적 건강법의 총체인 기공의 원리와 상세한 수련 방법/이동현 지음/4,500원

나를 점쳐 본다

동서고금의 모든 방법으로 알아보는 나의 성격과 운명/다이어그램 그림/정현숙 옮김/6,000원

한단고기

사대주의와 식민사학에 밀려 천여 년을 떠돌던 문제의 역사서/임승국 역주/7,000원

단

민족의 역사와 미래, 정신수련법을 다룬 민족 소설/권태훈 증언/김정민 지음/3,500원

大東夷(전5권)

소설로 엮은 최초의 한민족 태고사. 민족의 자각을 드높인다/박문기 지음/각권 4,000원

옛 詩情을 더듬어

신라에서 조선 후기까지, 빼어난 우리 한시 300여 수를 평설/손종섭 편저/8,500원

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속 文化

우주의 원리가 숨겨진 秘典 《天符經》의 심오한 세계와 우리 고유의 문화/권태훈 지음/9,000원

민족비전 정신수련법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수련법을 정리, 해설한 책/봉우 권태훈 옮 김수/정재승 편저/6,5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정신세계 전문 「책방 정신세계」 741-7033(통신판매회원제 운영)